

이 자료는 7.28일 오전 9시 1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동 자료는 실제 강연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전경련 제주하계포럼
강연자료

한국과 동북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

동북아 경제활성화를 위한
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☐ 일 | 시 : '05.7.28(목) 09:10 ~ 10:10 (60분) |
| ☐ 장 | 소 :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 |
| ☐ 대 | 상 : 국내외 CEO 및 임원 400여명 |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
한 덕 수

< 목 차 >

I . 대외 경제여건	1
II . 동북아 경제현황 및 전망	2
III . 한국정부의 정책방향	3
1. 제도와 관행의 국제표준화	3
2.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의 구축	4
3. 역내 협력의 강화	5
4. 남북 경제협력 강화	5
IV . 경제주체들에 대한 당부	6

I. 대외 경제여건

□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가속화

- WTO 체제 출범, DDA 협상 진행 등 세계화와 개방화가 진전
 -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의 확산
 - 자본·기술·인적자원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
 - 최근 정보통신기술(ICT)의 발달로 인한 경쟁의 global化
- ⇒ 한 나라의 경제·사회시스템 자체는 생산요소와 달리 이동 불가능하므로, 국가경쟁력은 경제·사회시스템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

□ 세계화·개방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

* 우리 경제는 교역규모가 GDP의 70%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개방경제체제

- 대외개방은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대내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

⇒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제·사회시스템을 구축
(선진경제와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)

⇒ 지역내 경제통합과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촉진
하여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

II. 동북아 경제현황 및 전망

(1) 세계경제 속 동북아의 위상

☐ 유럽과 북미에 버금가는 세계 3대 경제권

* 2003년 현재 동북아(한중일 기준)는 전세계 GDP의 17.5%, 인구의 23.4%, 교역량의 13.6%를 차지

(2) 동북아 주요 3국의 경제현황

☐ (한국) '05년 상반기중 3% 성장, 하반기 경제호름의 개선 추세를 이어나가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☐ (일본) '02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, '04년 2.7% 성장 시현

☐ (중국) '03~'04년 9%대의 고성장 시현

(3) 동북아 경제협력 평가

☐ 북미(NAFTA)·유럽(EU) 등 여타 거대 경제권역의 지역 협력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

< 역내 교역비중 > (자료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)

	EU(서유럽 15개국)			NAFTA			동북아(한·중·일)		
	1980	1990	2003	1980	1990	2003	1980	1990	2003
역내	57.3	64.5	60.4	33.2	37.2	44.9	-	12.7	23.7
역외	42.7	35.5	39.6	66.8	62.8	55.1	-	87.3	76.3

☐ 지역내의 잠재적인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국가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여,

○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음

Ⅲ. 한국정부의 정책방향

< 기본방향 >

- ◇ 적극적 대외개방과 대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구현
- ◇ 역내 경제·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통합과 동반성장에 이바지

1. 제도와 관행의 국제표준화

☐ (금융 분야)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

- 단기적으로 규제완화 등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추진
- 중장기적으로 포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법 통합 추진

☐ (외환 분야) 외환자유화의 지속 추진

- '05년말 예정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 검토중
- 2011년 예정된 외환자유화 완료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검토

☐ (기업 개혁)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

-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('03.12)의 차질없는 집행
-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·감시체계 강화

☐ (노동 분야)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

-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

2.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의 구축

□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

- 선도 금융시장(채권, 구조조정, 파생상품)과 선도금융업종(자산운용업, 투자은행, 사모투자펀드)의 성장기반 구축
-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,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“금융허브 추진에 관한 기본법(가칭)” 제정 추진

□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

- 부산신항, 광양항에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조성
-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종합물류업 인증 부여,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 육성

□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본격화

- 송도 국제업무지구, 청라지구, 여수 화양지구 착공 등 경제자유구역(FEZ)의 개발을 본격화
- 최첨단 교통·통신 인프라 구축과 각종 규제완화

□ 민간부문의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

-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동시에 지원
 - 글로벌 경영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협력에 공헌

3. 역내 협력의 강화

☐ 기존 협력채널의 강화

-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+3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주요 경제·금융이슈에 대해 공동대응 모색

☐ 역내 경제통합 지향

- 지역내 무역·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역내 FTA 등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
- 우리의 중간자적 위치를 활용, 장기적 안목에서 동북아의 각국 상호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

4. 남북 경제협력 강화

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

-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

☐ 3대 경협사업*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지속 추진

* 개성공단 건설, 철도·도로 연결, 금강산관광사업

- 개성공단 본단지 부지조성이 진행중이며, 1차 5만평을 9월중 분양
- 연내 경의선·동해선 도로를 공식 개통하고 철도 연결 공사 완료를 추진

IV. 경제주체들에 대한 당부

□ “경제는 심리”임에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

* IMF, OECD 등 주요 외국기관은 우리경제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음

□ 경제주체들이 자신감과 의욕을 재충전하는 한편,

○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

- (가계와 기업)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, 능력개발과 기술개발 등에 매진
- (외국인투자자) 대외개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지향하는 한국정부의 진의를 바로 이해하고 한국경제와 더불어 발전해 나가겠다는 동반자 의식을 가져 주실 것
- (정부)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경제제도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
-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